

# ‘광주형 일자리’ 빛그린산단에 체육관 건립

###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50억 확보

### 무등경기장·상무시민공원 체육센터도 30억씩 받아

광주형 일자리의 선도모델을 구축 중인 빛그린산단 내에 개방형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50억원을 확보했다.

광주시는 1일 “정부의 ‘2018년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모에 빛그린산단 개방형 체육관 건립사업, 무등경기장과 상무시민공원 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빛그린산단 체육관 건립은 광주형 일자

리 선도모델로 빛그린산단에 조성 중인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광주시가 전력을 쏟고있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첫 국비 확보다.

빛그린산단 개방형 체육관의 총사업비는 100억원(국비 50억원)으로,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3800㎡이며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다. 실내체육관, 수영장, 유아놀이터, 다목적룸 등이 들어서며 체육과 문화가 연계된 복합시설로 건

립된다.

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빛그린산단 내 다양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힘을 쏟고 있으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위한 각종 인프라 등 부대사업들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 적정 노동시간, 원화정 관계 개선, 노사 책임경영의 4대 조건을 충족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문화, 복지, 보육시설 등의 지원을 통해 보전한다.

이와 함께 무등경기장과 상무시민공원 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도 함께 선정돼 국비 30억원씩을 지원받게 됐다.

이 사업은 높아진 주민들의 생활체육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 각각 3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40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3000~3200㎡ 규모의 국민체육센터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건립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시민들의 생활권 내에 접근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을 공급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도시철도공사 16명 공채

### 20일까지 접수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정규직 직원 16명을 공개 채용한다.

1일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모집 직종은 사무직 7명(장애인전형 2명 포함), 간호직 1명, 전기직 3명, 기계직 1명, 신호직 1명, 승무직 1명, 토목직 1명, 건축직 1명 등이다.

응시자격은 공사 인사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남녀로,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광주시내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원서 접수는 14일부터 20일까지이며 본인이나 대리인의 직접 방문 접수만 받는다. 필기시험은 12월1일, 면접시험은 12월14일이다.

한편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이번 응시원서와 면접시험 등에서 학력과 연령 등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적용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지마을 어르신들 ‘옛장수 가세춤’

사의 흥을 돋우고 있다.

1일 광주 남구 다목적체육관에서 남구 공동체의 날 행사에서 평균 연령 80세로 구성된 대촌동 대지마을 어르신들이 색색들이 한복을 입고 ‘옛장수 가세춤’을 선보이며 행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시, 국세청 공조 부동산 투기 강력 단속

### 지난달 5건 적발

광주시가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 부동산 투기 강력 단속에 나서 실거래법 등을 위반한 5건(행정조치 3건, 시정 조치 2건)을 적발했다.

광주시는 지난 9월 14일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9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자치구·경찰청·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5개반 26명의 불법행위 합동단속반을 편성한 바 있다. 단속반은 부동산거래 집중도 모니터링 지역인 광주 남구, 광산구를

중심으로 광주 전역의 공인중개업소 71곳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섰다. 단속 결과 행정조치 5건, 시정 10건 등을 적발, 실거래법 위반행위자는 9월말지 120건 7억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행정조치 대상 3건 중 2건은 업무정지하고, 1건은 현재 조치가 진행중이다. 단속에 이어 시와 경찰청, 국세청은 지난 10월 11일 간담회를 열고 단속반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된 허위계약서 작성, 실거래신고 위반 등 의심 건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위반사항에 대

해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시는 추후 단속 중 입수한 자료와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된 실거래법 위반 의심자료(264건)를 정밀조사하면서 경찰청, 국세청과 자료를 공유할 계획이다.

현재 경찰에서는 허위계약서 작성, 실거래법 위반 등 7건 31명에 대한 내사를 진행중이며, 국세청도 분양권 거래, 허위계약서 작성 등 탈세의심 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3개 기관은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행정·형사·조세분야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청 홈페이지에 개설한 부동산 불법거래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통해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동산 실거래해제신고 의무화’, ‘주택거래허가제’, ‘분양가 상한제’ 등의 도입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광주지역은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기대해 높은 가격의 호가가 형성돼 있지만, 실거래는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18일 국토교통부주관으로 남구 분선동(제일 풍경재) 실거래신고 건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거래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시민참여단 250명 속의 착수

### 9~10일 종합토론회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시민참여단 250명이 찬반 관리 주장 이유, 향후 광주 시 교통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속의에 돌입했다.

광주도시철도2호선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는 1일 ‘도시철도 2호선(지하철 2호선) 공론화 시민참여단 250명이 종합토론회에 앞서 학습할 수 있도록 마련한 온·오프라인 속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11월 8일까지 오프라인 속의자료집으로, 온라인은 이라닝(e-Learning) 영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속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속의자료집은 시민참여단이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우편과 이메일로 보

냈고, 이라닝(e-Learning) 속의 영상은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 ‘시민참여단 전용학습방’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시민참여단이 거쳐야 할 관문인 이라닝(e-Learning) 영상 학습은 ‘시민참여단 전용학습방’에 접속해 1강부터 3강까지 순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탑재된다. 1강은 공론화 개념과 절차를, 2강은 광주교통현황, 3강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 양측의 주장으로 구성됐다.

최영태 공론화위원장은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2일로 진행할 종합토론회에 앞서 시민참여단이 효과적인 학습과 토론을 통해 건설 찬반의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속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스마트시티 조성 속도 낸다

### 美 웰컴연구소와 협약 체결

광주시는 1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미국 웰컴연구소(라메쉬 라오 소장)와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시와 웰컴연구소는 광주가 대한민국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길목에서 스마트시티 조성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기술교류 증진과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건강한 노후, 시민안전, 인공지능, 에너지 관리, 지능형 교통, 환경 모니터링 및 도시 빅 데이터를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공동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웰컴연구소 한국지사 광주 설립에 협력

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공동 연구프로젝트,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에 상호 참여 및 지원을 협력하고 연구원 및 엔지니어, 대학생 교류를 통해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웰컴연구소는 세계적인 모바일 칩셋 회사인 퀄컴의 펀딩을 받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설립한 정보통신기술연구소로 광주시가 지향하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협력 파트너로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스마트시티 기술 구현을 위한 산·학·연·관 네트워크는 물론 협력 교류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사회적경제기업 50곳 목포서 한마당 행사

### 농식품 등 우수 제품 판매

전남지역 사회적경제기업 50곳이 2일 목포 평화광장에서 ‘2018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연다.

전남도 주최하고 목포시와 전남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사회적경제 가치를 부각하고 전남도 사회적경제인들의 소통과 화합, 기업 홍보를 위한 자리다.

사회적기업은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 50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 생산한 농식

품을 비롯해 친환경가구, 다육식물, 우리밀제빵, 수공예품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판촉 행사를 연다.

또 사회적경제기업과 한전KDN 등 나무 빛가람혁신도시 14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회적가치 실천 협약식’도 한다. 협약에 참여한 공공기관은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공동 협력사업 발굴하게 된다.

전남도는 공공구매 실적 우수 시군 담당자와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여 기업인 등 유공자에게 표창한다.

사회적경제기업과 주민, 관람객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노래자랑과 문화예술포럼도 펼쳐진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A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대의: 430-8801